5.8도 최강 지진 한반도 뒤흔든 날…무책임한 선생님들

학생은 지진 공포 / 학교는 야자 강행

"공부하다 죽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교감이 '불감증 방송'
광주 28개 고교 대피 안시켜…"세월호 벌써 잊었나" 불안

지난 12일 오후 8시32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지점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지축을 흔든 이 시각 광주 A고교에서는 "죽어도 공부하다 죽어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교감의 '지진 대처 방송'이 흘러나왔다. 같은 시각 B고교에서는 "지진 일어난 지 다 안다. 너흰 고3이다. 앉아서 공부하라"고 대응했다.

한반도를 뒤흔든 '최강 지진'에도 광주지역 학교들은 무감각했다. 창틀이 흔들리고 게시물이 떨어졌지만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세월호 때의 대처와 꼭 같았다. 교육계와 안전 전문가들은 '세월호의 교훈을 망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주 지진'과 관련해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한 광주지역 55개 일반계 고등학교로부터 지진 대응 조치를 보고 받았다. 보고 결과, 15개 학교에서 운동장 대피 또는 책상 밑 대피 등의 조치를 취했다. 12개교는 오후 8시30분 5.8규모의 지진으로 진동이 느껴지자 하교 및 귀가 조치했다.

나머지 28개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했다. 이들 학교의 미조치 이유는 '진동을 느끼지 못했다', '학교장 판단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했다' 등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마다 재난 상황 안내문을 배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진 대응 지침은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 노후도·산악 등 학교 위치 등에 따라 상황이 제각각이므로 지진 발생땐 학교장이 알아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집으면 대처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다.

미온적인 학교의 대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창틀이 흔들리고 게시물이 덜컹됐는데도 대피는 하지 않고 자율학습하라고 강요했다"면서 "지진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고 교육청에 항의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건물이 흔들리는데 당연히 대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실제 상당수 학교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진은 아랑곳 않고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재난안전담당 송영선 사무관은 "학교장 판단에 맡겨져 있는게 현실이다"면서 "전국의 학교가 마찬가지여서 행동 매뉴얼 등 종합대책을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진동을 느꼈다면 대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다음이 공부다"라며 "세월호 교훈을 잠시 잊지 않았나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역 학교의 내진 설계는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 내진 설계대상 건물 929곳 가운데 204곳만 적용돼 내진 설계비율이 22%에 그쳤다. 전남은 8501곳 가운데 660곳만 적용돼 내진 설계비율은 19.85%였다. 전국 평균 비율이 23.8%임을 고려하면 광주와 전남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재난위험시설도 3곳 중 1곳(34.6%)은 광주·전남지역 학교다. 전국 학교의 D~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21개교 26개 시설로, 이 중 광주 3개, 전남 6개였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노후화나 단면 손실·안전성 위험으로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자 성추행' 배구코치 해임

광주의 한 중·고교에서 배구팀 코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해당 학교가 코치를 해임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 중·고교 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학교 배구부 사건과 관련해 우선 통렬한 반성과 깊은 유감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도자의 (성)폭력에 관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고 훈련 상황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이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훈련장에 CCTV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여자 선수들이 있는 팀은 가능하면 여성 지도자를 초빙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교 여자 배구팀 일부 학생들은 코치 A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비엔날레 추석 연휴 인파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도슨트 설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016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4일부터 5일간 약 3만명이 방문했으며 11월6일까지 휴무없이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양문제 언쟁…여수서 모녀 음독 자살

여수에서 70대 노모와 50대 딸이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양 문제로 언쟁을 벌인 직후 독극물을 마시고 잇따라 숨졌다.

1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0시40분께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서 A(여·74)씨와 큰딸 B(50)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모녀는 명절을 쇠러 A씨 집에 머무르고 있던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모녀의 음독은 가족간 술자리에서 벌어진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말다툼의 배경에는 항암치료 중인 노모의 부양문제가 자리했다.

이날 밤 A씨의 집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큰딸 B씨, 여수에 사는 막내딸 그리고 A씨의 조카 등 4명이 술을 곁들여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혈액암에 걸린 A씨 부양문제, 고향집 리모델링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큰딸과 노모의 짧은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비극으로 변했다.

술자리 도중 큰딸 B씨가 "왜 5남매 중 큰딸인 내가 어머니 부양을 도맡아야 하느냐, 나도 이제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하자, 어머니 A씨가 "나둬라, 차라리 내가 죽으련다"며 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방으로 향한 직후 모녀가 음독하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양문제로 큰딸이 불평과 하소연을 쏟아내자 모친이 소리치며 작은방으로 뛰어가 음독했고, 곧이어 뒤따라간 큰딸도 함께 농약을 마셨다는 게 가족들 진술"이라며 "부양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모녀의 우발적 자살을 불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 주마"

진도 의신면 이장단협의회 훈훈한 현수막 화제

자살 기도·가정폭력 등
추석 연휴 희비 엇갈려

추석연휴 진도의 한 시골마을에서는 시아버지들이 내건 현수막에 며느리들이 잠시나마 명절 스트레스를 잊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반면 한쪽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아들과 채무 관계에 있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70대 노모가 숨지고, 50대 여성이 가정불화로 자살을 기도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8일 진도군 의신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장단협의회는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의신면 만길노인회관 앞길에 '애미야~~ 어서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 주마!'라고 적힌 현수막 한 개를 내걸었다.

이장단협의회는 귀성길 고단함과 명절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며느리와 자녀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 며느리와 자녀들이 먼 곳까지 찾아와주는 것만으로도 효도라는 게 의신면 41개 마을 이장들의 생각이었다. 의신면은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최소 6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다.

김양오 이장단 단장은 "자녀와 며느리가 편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자녀와 부침개를 부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 설에는 더 많은 곳에 현수막을 걸 생각이다"고 말했다.

반면 각종 사건·사고로 한가위가 얼룩지기도 했다.

무안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옛 동업자의 부모를 찾아가 아들이 갚지 않은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20분께 무안군 몽탄면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A(여·77)씨를 살해하고, A씨의 남편(79)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밤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서 가정불화와 우울증으로 고민하던 김모(여·55)씨가 자살을 준비하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지난 13일에는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 자살을 기도한 곽모(22)씨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들에게 인계됐다.

명절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도 있었다. 지난 14일에는 최모(43)씨가 여행을 가기로 한 계획을 바꿔 갑자기 친정집에 가겠다고 한 부인(38)의 뺨을 때린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광주광산경찰에 입건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박준영 의원 측근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잇따라

선거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측근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박 의원의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박 의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기소)씨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 중 2200만원을 조직관리 경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5)씨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책임자 김씨의 다이어리를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올해 4월 9~14일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식대 등의 자금지출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앞서 법원은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박 의원이 사무총장 김씨에게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학생이 300만원대 상품권 주워 돌려줘 '훈훈한 추석'

쌍나팔

○…20대 학생과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길에서 주운 수백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의 주인을 찾아줘 화제.

○…1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장모(27)씨가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웠다는 신고를 해와 지난 14일 소유자인 문모(48)씨를 찾아 돌려줬다는 것.

○…최초로 상품권을 주운 장씨는 사례를 거부하고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문씨를 찾았는데, 경찰은 "고향에 오면서 가족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상품권을 준비했다가 잃어버린 문씨가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7560	1	광산구 첨단중앙로152번길17-12, 3층 313호 [쌍암동,첨단에이엠씨티3차] 30.1942㎡	아파트	87,000,000 87,000,000	
2016타경8884	1	북구 효열로35번길35, 101동 4층 409호 [양산동,동남아파트] 59.7㎡	아파트	90,000,000 90,000,000	현황조사시관리비129,580원미납됨
2016타경9467	1	동구 소태길16, 8층 805호 [소태동,엔케이아이리스1차] 56.5297㎡	아파트	134,000,000 134,000,000	
2016타경9603	1	동구 운림동 588 무등스위트맨션 101동 8층 805호 60㎡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6타경60417	1	남구 월산로118, 108동 2층 201호 [월산동,월산우방아이유쉘] 84.8942㎡	아파트	280,000,000 28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7256	1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56-5 660㎡	전	100,502,060 100,502,060	일괄매각.제시외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261-78 97.79㎡ 제시외 가추 등 33.7㎡	단독주택		건물포함.목록1현황대
2016타경62765	1	북구 장등동606 188㎡ 제시외 창고11.25㎡	대	89,717,610 89,717,610	일괄매각.제시외
		북구 장등길 128 67.01㎡ 부속건물 변소1.20㎡[현황소재불명] 제시외 가추 6.49㎡	단독주택		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6타경6888	1	북구 우산동 200-25 327.9㎡[양석주지분1/16전부]	대	17,000,000 17,000,0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동소 200-25 1층 103호 39.61㎡[양석주지분1/2전부]	다세대		
2016타경8044	1	서구 농성동 392-46 159㎡	대	242,748,500 242,748,500	일괄매각.제시외
		서구 내방로398번길 15-1 [12가구] 1,2층 각79.30㎡ 3층66.30㎡ 부속건물 보일러실 6.0㎡ 제시외 주택 40.5㎡	다세대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2558	1	나주시 산포면 화지리 199 1643㎡[강지은,강철훈지분각17/252,강기만지분34/252각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45,664,947 45,664,947	지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적도상맹지
2016타경8532	2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567 1195㎡[현황전.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0,055,000 20,055,000	소하천구역저촉.수목포함매각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6타경8532	3	동소 568 959㎡[현황전.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3,426,000 13,426,000	소하천구역저촉
2016타경9696	1	영광군 군남면 동월리 676-1 4193㎡	답	47,380,900 47,380,9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9962	1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128-1 808㎡	전	24,048,000 24,048,000	일괄매각.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비닐하우스소재
		동소 1128-2 1196㎡[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886-2 4678㎡[현황답]	전	39,763,000 39,76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62239	1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산60-27 570㎡[자연림으로분묘소재여부파악할수없음]	임야	10,260,000 10,260,00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8419	1	서구 내방로349, 4층 403호 [화정동,유탑유블레스] 27.0768㎡	근린시설	74,000,000 74,000,000	
2016타경8532	1	북구 무등로180번길12, 7층 727호 21.76㎡	근린시설	24,000,000 24,000,000	
2016타경10276	1	북구 문화소통로170, 6층 601호 [용봉동,굿모닝타운] 327.4452㎡	사무소	641,000,000 641,000,000	공실.2016타경13084[중복]
	2	동소 170, 6층 602호 [용봉동,굿모닝타운] 327.4452㎡	사무소	641,000,000 641,000,000	공실.2016타경13084[중복]
2016타경10382	1	동구 대인동 97-1 1동 7층 708호 33.27㎡[분종순지분1/7전부]	근린시설	3,586,000 3,586,000	
[기타]					
2016타경7805	1	화순군 화순읍대리53-4 3228㎡주유소용지	기타	1,274,850,200 1,274,850,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기계기구포함.공장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참조
		화순군 화순읍 화보로 4167 1,2층각82.5㎡ 부속건물 기계실 41.76㎡ 제시외 창고 등 149.1㎡,기계기구 전자식 5식	사무소		
2016타경8341	1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964 재단목록제20015-4호 제시외 창고등147.1㎡,기계기구10식	기타	57,281,367,120 57,281,367,1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제시외변전소포함.목록1공장의명칭해동형광종공업[주],영업의종류:강선건조,주된영업소:영광군 홍농읍가마미로137,공장재단및기계기구목록참조
		동소 574-5 1016㎡	도로		
		동소 574-6 2294㎡ 제시외보일러실 26.6㎡	대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117 1층451.56㎡[여관,음식점] 2층356.10㎡ 지하1층151.20㎡ 부속건물 화장실 2㎡[멸실]	음식점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산222-2 496㎡	도로		
		동소 산223-1 198㎡	도로		
		동소 574-14 2320㎡ 제시외 펌프실 21㎡	임야		
		동소 574-16 8203㎡	임야		
		동소 산224-4 13203㎡	임야		
		동소 574-15 8708㎡	임야		
		동소 574-17 2171㎡	임야		
2016타경8662	1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29-22 3305.7㎡ 제시외 누수성능 기능 TEST M/C	공장용지	1,131,822,500 1,131,822,500	일괄매각.별지기계기구일련번호3호만매각대상.공장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참조
		동소 1029-22 1층530㎡ 부속건물 1층262.4㎡[사무실,기숙사] 2층262.4㎡[사무실]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10. 4.[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10. 11.[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1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모창환